

###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얼마 전 눈물로 쓴 편지 한 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뒤늦게 사랑을 고백하는 여학생의 짧은 편지였다. “차용이 1년 전부터 널 좋아했어.” 처음 그렇게 시작한 편지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는 거야”라는 탄식으로 이어진다.

“내 고백 받아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깐 어서 돌아와... 그냥 옆에서 몰래 바라만 봐도 난 행복하니까 제발 돌아와.” 안타까움은 계속된다. “그냥 쳐다볼 기회라도 줘! 그만 애태우고 어서 돌아와 줘... 너의 그 환한 웃음, 보고 싶단 말이야.”

차용이! 배가 침몰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순간 구명조끼를 다른 이에게 벗어주었던 아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몸을 던졌지만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 아이.

남몰래 차용이를 흠모했던 여학생은 편지 마지막에 후회의 심정을 토로한다. “진작 사랑한다 말할 걸. 진작 좋아한다 고백할 걸... 너무 후회돼. 보고 싶어 차용아...” 꿈꿨던 이 고백은 단원고 낮은 담벼락 한편에 걸렸다. 바다속에서 잠긴 차용이에게 끝내 전달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 하나하나 전해질 때마다 눈시울을 적셨다.

“하늘나라에선/ 자라나면 죄 짓는다고/ 자라나기 전에 데려간다 하느니라/ 죄 많은 아

비는 따 우에/ 남아야 하느니라”(김종삼의 시 ‘음악’ 일부)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에 속절없이 기다려야 했던 착한 학생들. 하늘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행여 죄 지을까 봐 그렇게 서둘러 데려간 것일까.

세월은 무심히 흘러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벌써 한 달 하고도 일주일. 관리들의 탐욕과 무능과 부패를 뜻하는 ‘관(官)피아’ 적멸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는데... 아직도 16명의 소중한 생명은 캄캄한 바다속에서 갇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 온 세상 부모들 다 울었는데

그동안 많이 울었다. 온 세상의 부모들이 다 울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흘린 눈물은 한 줄기 강물을 이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강물은 지금쯤 땡목항 앞바다로 흘러 흘러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오로지 한 분, 대통령만이 그 바다에 눈물 한 방울 보태지 않았다. 대통령은 왜 울지 않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눈물에 그렇게 인쇄한 것은 자식을 낳아 보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자식을 키워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은 자꾸만 늘어갔다.

과한 눈물은 사람을 무르게 보이게 한다. 특히 정치인의 잦은 눈물은 나약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게다가 계산된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 해서 비난받기 십상이다. 악어가 먹이를 삼킬 때 흘리는 눈물은 먹이감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다. 눈물샘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그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황산성 환경처 장관은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시도 때도 없이 울었다. 결국 “그리 나약해서 장관직을 수행하겠느냐”는 비판에 시달리다가 임명된 지 1년도 못 돼 옷을 벗었다. 시도 때도 없이 웃다가 낙마한 이도 있으니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이다. 너무 울어서 탈이요 너무 웃어서 탈이 난 경우다.

하지만 우리의 대통령은 너무 울지 않아서 비판을 받아 왔다. 모두가 우는데 홀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건 지나치게 차가운 지도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그것은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대통령의 눈물 결핍은 개인적인 불행과 시련을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극복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몇 번인가 눈물을 보인 적도 있다.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그리운 금

강산’ 연주에 눈가를 훔치던 장면을 기억한다. 10년 전에는 탄핵 역풍 속에서 눈물의 TV 연설로 총선 판세를 뒤집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아버지(박정희)를 회상하면서 흘린 ‘개인적인 눈물’이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대통령께서는 남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울어 본 적 있느냐?’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눈물의 리더십’이나 ‘엄마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소 잃고서 외양간 없애는가

오래전 ‘눈물로 쓴 편지는 부칠 수가 없어’라고 노래한 가수(김세화)가 있었다. 눈물은 너무나 빨리 마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르는 속도는 빨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남는 것이 바로 눈물이다.

눈물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슬픔을 표현하는 침묵의 언어이다. ‘더러는/ 옥도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김현승)이기도 한 눈물은 때로 백 마디의 말보다 호소력이 강하다. 눈물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이면서 공감과 교감의 적극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의 대통령께서도 드디어 눈물을 보였나. 며칠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다. 담화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한 마디만

보태자면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책은 너무 빨랐지 않나’ 싶다. ‘힐링’이란 게 뭐 별것인가.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고, 함께 눈물 흘려 주는 것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눈물은 너무 늦었다.

대책으로 제시된 해경 해체 소식을 듣고는 모두들 깜짝 놀랐다. 이리다가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 부처 하나씩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없애자는 것이냐’는 시중의 비아냥거림이 들린다. 그런 면에서 대책은 너무 빨랐다. 아직 구조도 끝나지 않았는데..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삼백 배수살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도종환의 ‘깊은 슬픔’)

그리스 신화에 보면 10여 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그 슬픔을 못 이겨 돌이 된 여자(니오베)가 있다. 그녀는 돌이 되어서도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돌이 된다 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이들이 바로 실종자 가족들일 터.

하지만 담화문의 그 어디에도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위로가 없다.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실종자는 외면하고, 유가족은 미행하고, 피의자(유병인 전 회장)는 놓이고. 아, 이 정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 한나라당·민주당 대선자금 수사 ‘유명세’

### ■총리 내정 안대희는?

### 중수부장 출신·PK 인맥 박근혜 대선캠프에 참여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새 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지난 2012년 10월 9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과 국회 심포지엄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59) 전 대법관은 지난 1980년 서울대 재학생 신분으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5세에 최연소 검사로 임용된 이력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2·3 부장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통했으며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냈다.

안 전 대법관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것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잇달아 구속해 주목받았다. 또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과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의 불법 대선자금

을 파헤치며 현역 의원들을 줄줄이 구속해 이름을 날렸다.

지난 대선에선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아 초대 총리로도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한광옥 국민대 통합위원장 영입 문제로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

난 바 있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경남 함안 출신이어서 PK(부산·경남) 출신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점, 정홍원 총리에 이어 또다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점 등이 인사정문화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한·중·일 문화산업 협력 모델 만들어야”

### Pre 2014아시아문화포럼

광주시를 포함한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규 아시아문화학회 이사는 22일 전남대에서 열린 ‘Pre 2014아시아문화포럼’ 발제문(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광주시,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로 구성된 ‘동아시아문화도시’가 교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문화산업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이를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력양성 및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한·중·일 3개 도시의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과 문화수익 창출을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분야에서 공동제작·판매·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사키 마사유키 일본 도시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일 3국간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다”며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추진하는 한·중·일 세 나라간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존재함에도, 문화산업, 창조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시장은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유럽연합이 ‘유럽 문화수도’를 선정, 집중지원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를 본 때 만든 한·중·일 문화교류·협력 체계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광주-KTX 광명역 시외버스 노선 신설

### 내달 3일부터 운행

광주와 경기도 광명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광주와 광명시는 22일 “광주와 광명중합터미널(KTX 광명역)을 연결하는 시외버

스 노선이 신설돼 다음달 3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는 광주중합터미널까지 출발해 의왕시를 거쳐 광명터미널까지 293km 구간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행한다. 광명터미널은 지난해 11월12일 개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국가 경쟁력 세계 26위 지난해보다 4단계 밀려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26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밀려났다. 경제 성과와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 수준을 지켰으나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 분야가 추락한 탓이다.

IMD가 22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분석 대상 60개국 가운데 26위로 2011~2013년 기록했던 22위에서 4단계 추락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9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2단계와 1단계 밀려났다. G20 국가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해 지난해 7위에서 1단계 후퇴했다.

전체 순위로 보면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2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5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지난해 24위에서 3계단 오른 21위로 한국을 역전했고, 중국은 21위에서 23위로 밀렸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4개 부문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제 성과와 인프라는 각각 지난해 20위와 19위 수준을 지켰으나 정부 효율성은 20위에서 26위로, 기업 효율성은 34위에서 39위로 각각 추락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중-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그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그송  
선거차량  
UCC로그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